

Korean Community

코리언 커뮤니티 Vol 15. No 1



The 11th Korean Traditional Dance & Music Night

한국의
소리

온가족이 함께!

Mission

The KCC's Mission is to promote healthy and independent living for all ages and to integrate the people with Korean Heritage into the greater community through culture & education, outreach, health & social services, and civic advocacy.

Vision

The KCC's Vision is to provide practical tools and assistance for Korean immigrants to overcome their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and to preserve and promote Korean cultural heritage and social identity through self-empowerment and a spirit of participation and giving while building bridges to American Society.

President's Message

In 2000, a group of elderly Korean immigrants in Fort Lee, New Jersey, founded the non-profit organization, Friends of Grace Seniors, Inc. (FGS), in a 1,000 square foot office space to serve and empower the growing Korean-American community with a dream of building a Korean Community Center and Retirement facility.

In 2004, the FGS was able to move to a 20,000 square foot building in Englewood, New Jersey. There the FGS offered a variety of cultural and educational programs as well as health and senior services for all ages. These services were made possible through many fund-raising events, receipt of government and foundation grants, and active program development. The FGS is now known as the Korean Community Center (KCC) and is registered by the state of New Jersey. In 2013, the KCC purchased a building site in Tenaflly, New Jersey, and was granted approval to build the center. The new Korean Community Center, a modern, three-story, 21,000 square foot facility, opened its door for a brighter future in January 2015.

Since moving to the new center, we're thrilled to see greater participation by the younger generation, including young families and children, in addition to the older members. The KCC truly has become a home for Korean Americans to gather, share, teach, and learn from each other. The KCC will continue to empower future generations, as well as our retired members, making Korean Americans prou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KCC depends on its members and donors. Your generosity sustains and advances programs and services to better meet the needs of our members as well as the local community. Thank you again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for the confidence that you have placed in us.



Kye-Eun Ma, M.D.
KCC President

Korean Community 코리언 커뮤니티

January - March 2017

Vol 15, No 1

목 차 Contents

Healthy Living	5
• 움직이는 교육 - KCC 의 튼튼놀이 수업	
• 2016 KCC 웰빙건강 축제	
Early Childhood	7
• 모든 아이들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 초기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과 평가	
Afterschool Enrichment	10
• 손끝으로 깨우치는 수학, 과학, 공학의 원리	
• Book Publishing Club	
• Math 경시대회를 완벽히 준비하는 KCC Critical Thinking Math	
• 자녀에 대한 사랑 표현 5가지	
College & Career Preparation	14
• Young People's Network	
Adult Continuing Education	15
•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테너 지양길 노래교실	
• KCC 독서수다클럽	
• KCC 인문학강의	
Retirement Life	21
• 일주일에 2번 파워라인 댄스로 경쾌한 음악에 스텝을 맞춰 춤추며 건강해지는 시니어 라이프!	
Korean Culture & Heritage	23
• 한국 전통음악과 무용의 밤이 11년째 올해도 성황리에!	
• 한국 전통복식의 아름다움, 한복	

발행인 : 마계은

편집위원 : 이애나, 김성현, 전원경, 강석영

디자인 : 한아영

Cover page photo credit: 권보준

Korean Community is a publication of Korean Community Center (Friends of Grace Seniors, Inc.)

Korean Community Center

100 Grove St, Tenaflly, NJ 07670

T : 201-541-1200 F : 201-541-4060 www.kccus.org



KCC 한인동포회관
KOREAN COMMUNITY CENTER

The 17th Annivers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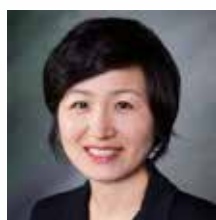
Gala 2017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GALA CO-CHAIRS



Terry Yun
Managing Director at Macquarie Capital



Judy Chang, Esq.

Saturday, April 22, 2017 at 6pm
Teaneck Marriott at Glenpointe
100 Frank W Burr Blvd, Teaneck, NJ 07666



KCC 한인동포회관
KOREAN COMMUNITY CENTER

The 12th Annual

Young People Network Night

*Meet and network with Korean Americans
who are passionate about their life and work!*



Being Korean in an American World

Date

Saturday, April 1, 2017 at 6pm

Venue

Korean Community Center
100 Grove St, Tenafly, NJ 07670

Contact

201-541-1200 ext 111

음악과 기부로 어우러진 *2016 Benefit Concert!*

KCC Women's Club이 주최한 Benefit Concert에 KCC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콘서트에는 Quartet Piri의 아름답고 선율과 테너 류하나의 웅장하고 화려했던 음색이 오신 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동시에 음악으로 하나가 되게 하였다. 또한 Women's Club 회원들이 손수 만든 정성 어린 음식들은 더욱 큰 기쁨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매달 \$1500을 후원하고,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KCC Women's Club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날모인 \$10,000의 후원금은 KCC 프로그램 발전을 위하여 사용된다.



KCC 이사회가 주최한

KCC Honor Society Appreciation Dinner

KCC Honor Society Appreciation Dinner가 지난 12월 8일 목요일 Haworth Country Club에서 열렸다. KCC Honor Society는 KCC의 발전을 위해 연 \$1,000 이상을 후원해주시는 후원이사로 구성되며, 이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후원이사님들이 서로 친교하는 연례 만찬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날 2017년 4월 22일에 진행될 The 17th Anniversary Gala의 Catch Phrase인 Empowering Next Generation를 발표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인 YPN과 2017 Alumni Dinner 계획을 소개하였으며, 다음 세대를 지원하는 KCC의 여러 노력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Honor Society 멤버들에게 부탁하였다. KCC Honor Society 멤버들이 후원이 있었기에 올 한해 KCC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커뮤니티와 함께 할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한다.



움직이는 교육



KCC의 놀이 수업



성적과 시험을 중요시하는 학부모나 사회의식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학원에 가거나 스포츠를 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내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은 다 경쟁자로 여기는데,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경험한 어린이들이 정서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가 있었다. 예를들어 자기조절, 자기관찰, 문제 해결, 협동심 또한 어린이

아이들에게는 신체운동 및 유아 체육 활동은 흥미를 통한 놀이와 운동기능 발달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올바른 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KCC Children & Teen Sports Club**은 기초체력을 기를 수 있는 신체적성 활동을 놀이화하여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수업이다. 어린 시절 반복되고 통제된 환경보다 주변의 또래 친



KCC Children & Teen Sports Club

의 공격 성향을 자체를 낮추는 등 운동 부족의 아이들보다 상당히 긍정적이고 건강한 정서의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신체활동은 균형적인 신체발달뿐 아니라 두뇌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게임이나 놀이를 통해 규칙과 질서를 알게되며 단체활동을 통한 사회질서도 알게 된다. 아이들은 자신의 몸의 소중함을 알고, 아이들의 건강한 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놀이와 운동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또래 친구들과의 작은 사회에서 함께 운동하며 때로는 다투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과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가며 함께 즐거운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이 달라진다.

운동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공부만 하면 학습 능률이 오르지 않는 데 놀이를 하고 나서는 학습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적당한 운동으로 학생들이 즐거운 상태로 수업하면 하루가 즐겁고, 수업 집중도가 높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여서 놀다 보면 협동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구들과 함께 뛰어 노는 시간을 갖는 것이 다양한 정서를 함양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데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의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활동들을 놀이 형태로 접근하도록 하여, 신나는 놀이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대근육 및 소근육 발달을 촉진시키며 감각과 신체 부분간의 협응력을 길러주기도 하고 주어진 공간에서 신체를 균형 있게 움직이는 능력을 키워주기도 한다. 또

한 자신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생활 습관을 길러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생활습관의 변화로 비만이나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을 통한 좋지않은 자세로 축만증, 거북목등의 체형변화도 생기고 있다. KCC 어린이 스포츠 클럽은 운동량이 많아 다이어트와 올바른 아이들의 체형교정에도 효과적이다. 단시간에 점프, 기구등 사용한 운동등 놀이를 통해 즐겁게 운동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민첩성,순발력,평형성,협응성을 기르고, 다른 아이들과의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서로 신뢰와 믿음을 쌓고 사회성도 길러주며 학교나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은 놀이를 통한 일석 삼조의 운동수업이다.

Mee Jung

Artistic Director/ Choreographer
i KADA Contemporary Dance Company



[REFRESHING EXERCISE]

Super Slimdown

필라테스, 요가 동작으로 근력강화 및 바디라인을 살려줍니다.

Instructor: Mee Jung

Date & Time: Mon, 10:00-11:00am

Fri, 10:00-11:00am

Fee: \$60/4times

Salsa Line Dance

살사 리듬에 맞춰 라인을 만들어 방향을 전환하면서 재미있게 스텝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Instructor: Donay Wilford

Date & Time: Tue, 10:00-11:00am

Fee: \$40/4times

Healing Stretching

운동을 처음 접하시는 회원분들이나, 무리한 운동을 하실 수 없는 씨니어분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Instructor: Mee Jung

Date & Time: Fri, 11:00-12:00pm

Fee: \$60/4times

Power Line Dance

신나는 음악과 운동의 조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몸과 정신의 건강에 좋은 씨니어 파워 라인 댄스입니다.

Instructor: Mee Jung

Date & Time: Mon, 11:00-12:00pm

Wed, 1:00-2:00pm

Fee: \$10/1month (55세 이상)

\$60/4times (55세 미만)

Teen Sports Club (6th-8th grade)

다양한 운동으로 유연성과 신체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Instructor: Mee Jung

Date & Time: Mon, 4:30-5:30pm

Wed, 4:30-5:30pm

Fee: \$10/1month

Children Sports Club (K-5th grade)

Racing Games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한 운동으로 유연성과 신체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Instructor: Mee Jung

Date & Time: Mon, 4:30-5:30pm

Instructor: Alison Miller

Date & Time: Thur 4:45-5:45pm

Fee: \$10/1month

[건강 검진과 진료]

Blood Screening

혈당, 간기능, 신장기능, 콜레스테롤 검사 - \$35
 갑상선, 간염, 빈혈, 소변 검사 - 추가비용
 Date & Time: 2nd & 4th Mon. 9:00-10:30am
 *공복으로 10시까지 오셔야 합니다.

Medical Clinic

일반내과 전문의가 진료해드립니다.
 Date & Time: 2nd Tue. 5:00-7:00pm
 Fee: \$40 (예약 필수)

Diabetes Education

‘식이요법’ 당뇨병관리로 합병증 예방을 돕습니다.
 Instructor: 정순양 (컬럼비아 대학병원 영양사)
 Date & Time: 2nd Tue. 7:00-8:00pm (예약 필수)

Health Seminar

(To be announced)

Health Insurance

NJ Family Care, Obamacare 등 보험 상담

Behavioral Wellbeing Screening

아동 행동/ 정서 건강 검진 (by appointment only)
 Counselor: Dr. Anna Lee (아동 심리학 박사)
 Sun Wook Park (아동 교육 전문가)
 Fee: 테스트 및 결과 - 무료

Aptitude Test (적성검사)

적성 검사를 통하여 성격, 특성, 관심 분야 확인
 Counselor: Dr. E. Christina Kim
 Fee: \$80
 (By appointment only)

2016 KCC 웰빙 건강 축제



자원봉사자와 회원이
 함께 만들어 간 축제의 장



지난 10월 17일 토요일 KCC 한인동포회관에서 열린 2016 웰빙건강축제에 500여명의 동포들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행사에는 무료 독감 접종, 각종 의료 & 교육 상담, 아트 & 운동 수업, 영정 사진 촬영, 바자에 이르는 광범위한 서비스가 제공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돋보였다. YPN 학부모님들은 몇일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시고 판매까지 전적으로 도왔고, KCC 강사들은 유익한 프로그램을 동포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재능을 기부하였다. 또한 YPN 학생들은 행사 진행 보조를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아트 교실 학생들은 직접 만든 작품들을 바자에 내놓는 등 이번 행사는 KCC 회원들이 함께 커뮤니티를 위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이루어낸 축제의 장이었다.



함께하는 진로 흥미검사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고 가족의 부양을 위해 금전적인 성공을 이루어야만 했던 이전 세대와 달리, 하고 싶은 것을 찾고 즐거운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진로탐색을 하는 것은 요즘 세대의 새로운 가치가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자녀의 행복한 미래 설계에 관심있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KCC 웰빙 건강 축제에서 진행했던 “함께하는 진로 흥미검사”에 참여하였습니다. 5살 아이부터 10학년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자신이 관심가는 진로분야를 점검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추천 직업을 함께 알아가 보면서 자신이 바라는 꿈, 그리고 부모와 주변에서 바라는 꿈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가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지만, 처음엔 어색해 하시던 부모님들도 온전히 자녀에게 집중하며 아이의 진로탐색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직접 흥미검사지를 작성하신 부모님들이 자신의 결과를 아이와 동등한 레벨에서 공유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몇몇의 부모님들이 자신의 진로흥미검사에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처럼, 진로탐색은 일정 시기에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 평생 해 나아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가족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진로결정과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가족, 부모님이 아닐까요? 아이의 재능과 관심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훗날 필요한 직업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도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인정을 바라는 아이들은 은연중에, “우리 엄마아빠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을 바라실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대립된다고 생각할 경우, 마음의 문을 닫거나 방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싶니?”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하는 진로에 관한 지속적인 대화를 이끌어 내고, 변화하는 아이의 생각을 잘 관찰하고 응원해주시는 것이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로흥미검사를 마치며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거나, 예전부터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자녀의 흥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앞으로도 자녀의 지원자로서, 격려자로서, 평생 해 나아가야 하는 자녀의 진로설계를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지원

M.A., Ed.M. in Counseling Psychology





조기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과 평가

Q. 제 아이는 1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말로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요. 괜찮은 걸까요?

A.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입을 열어 기적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장난감 블록으로 집을 지을 때 블록 하나위에 또 하나를 쌓아가듯,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기초가 되는 의사소통의 행동이 순서에 맞게 하나씩 발달해 나가는 것입니다. 웅알이와는 구별되는 첫 낱말을 사용하는 시기는 아이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한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경우 흔히 10-14개월 정도에 첫 낱말이 출현한다고 보는데, 동시적으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경우 8-24개월로 출현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의 항목 중 자녀에게 해당하는 단계를 살펴보고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생후 1년간 의사소통의 발달:
자녀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세요.

☒ **1 단계: 필요한 것을 울음, 몸짓, 웅알리로 표현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이 해석합니까? (0-3개월)**

- | | | | | | |
|------------|--------------------------|------------|--------------------------|--------------|--------------------------|
| 1) 울음 | <input type="checkbox"/> | 2) 쳐다보기 | <input type="checkbox"/> | 3) 소리내서 웃기 | <input type="checkbox"/> |
| 4) 얼굴색의 변화 | <input type="checkbox"/> | 5) 소리지르기 | <input type="checkbox"/> | 6) 모음과 같은 소리 | <input type="checkbox"/> |
| 7) 목소리의 변화 | <input type="checkbox"/> | 8) 몸동작의 변화 | <input type="checkbox"/> | | |

☒ **2 단계: 세상을 발견해 나가면서 주변 사물과 사람들에 흥미를 느끼는 것을 표현합니까? (4-7개월)**

- | | |
|--|--------------------------|
| 1) 표정으로 감정 표현하기 | <input type="checkbox"/> |
| 2) 사물과 사람을 향해 몸짓하기 (예, 손 뻗기) | <input type="checkbox"/> |
| 3) 여러 모음 비슷한 소리나 입 안쪽 소리 (ㅂ, ㅅ 비슷한) 내기 | <input type="checkbox"/> |
| 4) 사물이나 사람에 집중하고 특정한 말에 반응하고 좋아한다 ("뽕뽕, 멍멍") | <input type="checkbox"/> |

☒ **3 단계: 어른들로부터 관심과 도움과 허락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까? (8-11개월)**

- | | |
|--|--------------------------|
| 1) 특정 사물이나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어, 어'라는 소리를 내면서) | <input type="checkbox"/> |
| 2) 고개를 끄덕이기 나 손 흔들어 인사하기 | <input type="checkbox"/> |
| 3)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스처로 부가 설명하기 | <input type="checkbox"/> |
| 4) 단어와 비슷한 소리들을 내기 | <input type="checkbox"/> |
| 5) 한가지 단어나 손짓(싸인) 가끔씩 사용하기 | <input type="checkbox"/> |
| 6) 눈으로 가리키면서 소리를 내고 ('어, 어') 제스처도 동시에 사용하기 | <input type="checkbox"/> |
| 7) 음절성 발음이 많다. ('맘마, 어마, 어버, 바다다, 뽕뽕') | <input type="checkbox"/> |
| 8) 특정 낱말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김 (뽕이뽕이, 시계, 곤지곤지, 엄마, 할머니) | <input type="checkbox"/> |

위와 같이 언어 이전기의 소리나 제스처로부터 실제 첫 낱말을 말하는 시기로의 전환은 급격하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점차적,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므로 부모님이 각 단계에 나타나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그럼 우리 아이는 단순히 말이 늦은 편인가요?
아니면 언어장애를 가진것 인가요?**

A. '말늦은 아이' (Late Talker)와 '늦게 말이 트인 아이(Late Bloomer)' 는 언어를 배우

는 속도는 아이마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말늦은 아동이라도 나중에는 또래 수준을 따라잡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계속 언어발달 지체를 보이는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이 늦다' (Late Talker)는 것은 또래 아동에 비해서 표현하는

어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단일언어(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의 경우에는 만 2세까지 50개 미만의 표현어휘밖에 없으며 두 단어를 조합해서 말하지 않는 아이를 말늦은 아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 4세가 넘어서도 계속 표현 어휘가 제한적이고 단어를 조합해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는 '언어발달지체'로 판정합니다. 그러나 4세 정도에는 또래와 비슷한 수준의 표현어휘 수를 보이게 되면 '늦게 말이 트인 아이 (Late Bloomer)'라고 하거나 '언어표현발달이 느린아이(Slow Expressive Language Development: SELD)'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이런 아이들은 1) 표현은 서툴지만 이해 능력은 또래 아이들과 비슷하고, 2) 다양한 제스처와 표정으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3)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또래사이에서도 자신 있게 행동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시기까지 점진적인 발달을 보이면서 정상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다른 장애

위의 의사소통 발달의 세 단계에서 제시한 행동들은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다른 장애를 조기에 진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잣대입니다. 예를 들면 자폐범주성장애 (Autism Spectrum Disorders: ASD)를 가진 아이들 중 대부분이 손가락으로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행동을 나타내지 않고,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모음이나 자음의 발생, 혹은 음절성 발성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거나 아예 발성을 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의사소통 발달에 있어 단순히 시기적으로 느린 것이(delayed) 아니라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행동(disordered)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다른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정확한 발달진단을 받아 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장애위험군

아이의 언어발달은 아이가 소속된 가족이나 주양육자(예, 베이비시터), 지역사회 (예, 동네 놀이터, 어린이집, 교회, 플레이데이트)서 주어지는 언어 자극의 정도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 언어발달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언어 자극의 결핍만으로도 언어발달의 지연의 나타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연구문헌에 언급되는 환경적인 요인 중 두 가지는 1)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수준, 2) 다문화 가정환경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자라나는 2세 아이들은 이중언어의 노출로 인해 두 언어의 구조나 의미를 동시에 습득해야 하는 인지, 언어적 부담으로 인해 초기 언어습득 과정에서 자폐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백은아
언어치료사



Stress Management (Adult)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힐링을 주는 내마음에 디톡스 !

Instructor: Sunwook Park (아동교육전문가 / 부모교육코칭전문가)

Date & Time: Fri. 10:00-11:30am

Fee: \$200/10 times

Early Childhood

Five Senses Activities (콧코콧 오감놀이터)

아이마다 성공하는 놀이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신나게 놀면서 저절로 배우고 재미있게 똑똑해지는 놀이수업입니다. 다양한 자극으로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며 창의력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Instructor: **Sunwook Park** (예술 치료학 석사)

Date & Time:

빨강반(5-6세) Mon. 3:30-4:10pm

주황반(3-4세) Mon. 4:20-5:00pm

초록반(3-4세) Fri. 3:30-4:10pm

파랑반(7-8세) Fri. 4:20-5:00pm

Fee: \$120/4times

Kids Clay (Pre K-2nd grade)

자원의 재료인 흙으로 빚으며 소근육 발달과 더불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키우고 창의력과 협동심을 기릅니다.

Instructor: **Michael Preston**

Date & Time: 1/11 - 3/15 Wed. 4:40-6:00pm

Fee: \$240/10times (Material Fee included)

아이와 함께하는 도예교실

(3세이상 어린이와 어머니)

엄마와 아이의 스킨십을 통한 아이의 두뇌발달과 신체발달을 촉진하며 엄마와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시켜 줍니다.

Instructor: **Yeounkyung Park**

(경희대학교 도예석사)

Date & Time: Thur. 4:30-6:00pm

Fee: \$240/8times (Material Fee included)

창의폭발 가베교실

어린이의 창조력을 키워나가며 지능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Instructor: **Soomi Kim**

(유아교육 석사, 한국가베교육협회 프리벨 가베 지도사)

Date & Time: Thur. 3:30-4:10pm

Fee: \$80/4times (Material Fee included)

도레미팡팡 (3yrs and up, 5 students max.)

영유아기의 음악활동은 놀이의 기본이자 똑똑한 두뇌를 완성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듣고 부르고 연주하는 음악활동을 통해 음악감성과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꾸준한 음악 활동의 완성과정을 거치면서 어린이 스스로 성취감을 느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Instructor: **Yeonsil Kwon**

(이화여대 음악치료 석사, Music Together 전문강사, 영유아 음악프로그램 전문강사)

Date & Time: Wed. 3:30-4:20pm

4:30-5:20pm

Fee: \$120/4times (Material Fee included)

Kids Ballet (2.5-4y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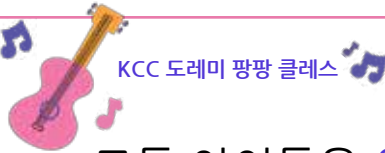
발레의 기초인 스트레칭부터 체계적인 내용으로 좋은 자세를 배우고, 유연성을 키워주며, 집중력과 표현력을 발달시켜 줍니다.

Instructor: **Jung Mee** (I KADA 안무가,

KoDaFe 뉴욕 국제 페스티벌 안무 / 예술감독)

Date & Time: Wed. 3:30-4:30pm

Fee: \$80/4times



모든 아이들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 레슨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꼭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다. “우리 아이가 음악에 소질이 있나요?” 또한 종종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오셔서 자신의 아이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 선생님이 피아노를 가르쳐보는 게 어떠냐고 묻기도 한다. 대답은 이렇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타고난 음악적 재능(music aptitude)을 가지고 있다. 3세 이하 영유아기는 뇌 발달이 급속히 진행되고 흡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올바른 초기음악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가 맞다. 하지만, 테크닉과 연주 위주의 악기 레슨 보다는 또래 아이들과 선생님과 함께 놀이하는 환경을 통해 음악적인 개념을 습득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유아기 발달 과정에 적합하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음악적 재능

아이들은 언어를 말하고 이해하는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만 아니라, 음악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태어난다. 스즈키(1898)는 18살에 바이올린을 배우기 위해 독일에 유학을 가서 바이올린 보다는 독일어를 배우느라 고생하는 중 3살짜리 아이가 독일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때 그는 아이들이 이 어려운 언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음악도 어린 시기에 교육하기만 한다면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아이들의 음악적 잠재력은 무한하며 이는 영유아기에 좋은 음악적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긍정적인 뇌 발달

만 5세 이전에 음악 감상, 음악적 경험, 악기 연주를 한 음악가 집단은 음악뿐 아니라 다른 소리들에 대한 뇌간의 정보처리 능력이 비음악가 집단보다 빠르고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 경로의 세 가지(감각, 지각, 인지) 단계 중, 뇌간은 귀로 들어온 소리를 감각하고 대뇌로 보내는 역할을 하며, 대뇌는 그것이 어떤 소리인지 지각하고 인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음악적 경험을 오랫동안 한 음악가의 경우 뇌간의 단계에서부터 소리를 더욱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뇌 역시 고차원적인 처리(주의, 기억)기능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한다. 유아기 음악교육은 대뇌의 구조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발판이 되는 효과적인 도구이므로 긍정적 뇌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하다.

다른 영역의 발달에도 도움을 주는 음악 교육

체계적인 초기 음악 교육을 받은 아동들은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에 비해 읽기, 수학, 운동 등의 학습 능력이 더욱 뛰어나다. 노래 부르거나 음악 감상은 유아의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음을 인식하고, 분별, 분류하는 능력은 서열능력, 재생능력을 만들어 인지를 발달시킨다. 웨이커를 흔들거나 북을 손으로 연주하기, 몸을 움직여 표현하는 활동들은 눈-손 협응력, 소-대 근육 발달, 다섯 감각 기관의 활용을 도와 신체발달에 도움이 된다. 음악의 심미적인 경험은 정서적 안정 및 감정 조절하는 방법, 사회성을 배우게 하며, 이는 또한 유아의 상상력, 표현력을 신장시킬 뿐만 아니라 호기심의 충족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긍정적 자아상의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든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어하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놀이’이다.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쁨을 얻으며, 놀이를 통해서 얻은 경험은 아이들에게 지혜로서 축적된다. 따라서 아이들의 음악적 성장 또한 아이들이 하는 재미있는 놀이와 같고, 발달 수준에 적합하며, 예술적 테크닉에만 치우치지 않고 음악을 그 자체로 즐기고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환경에서 적절히 제공될 때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의 음악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서 발달을 이루고 더 나아가 살아가는 동안 음악의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권연실

이화여대 음악치료 석사
영유아 음악 프로그램 전문강사



My Imagination World

Theme

상상의 나라

Deadline: Fri. April 14, 5pm

Eligibility : Part 1 : 4 - 7 yrs old / Part 2 : 8 - 12 yrs old

Drawing Paper Distribution : **March 1 - April 14, 2017**

Please pick up the official drawing paper from KCC or draw on 11x17 inch paper.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at www.kccus.org and submit with your art work.

공식용지를 KCC에서 픽업하시거나, 11X17in 도화지에 그린 후 KCC 웹사이트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 받으셔서 그림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Award Announcement :

Thurs. April 20 (www.kccus.org)

Award Ceremony :

Sat. May 6 at 1 p.m. at KCC

Selected winning entries' art works will be displayed at the **KCC Gallery** (May 6-13) and **Neiman Marcus** and **Englewood Hospital**.

AfterSchool Enrichment

[IMAGINATIVE ART]

Wood Craft (3rd grade and up)

나무 블럭과 나사못, 바퀴 등의 소재로 다양한 형태의 조형물을 만듦으로써 입체 설계능력과 독창성, 손재주를 기를 수 있습니다.

Instructor: Michael Preston

Date & Time: 1/10 - 3/14

Tue, 4:40-6:00pm

Fee: \$250/10times (Material Fee included)

Intensive Art Trainin (9yrs and up)

15주 완성으로 드로잉(연필, 목탄, 파스텔), 컬러링(수채화, 유화), 조각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미술을 배웁니다.

Instructor: Sung Ho Choi

(Pratt 석사, 홍대 학사, 영구벽화 커미션 수상)

Date & Time: Fri, 3:30-5:00pm

Sat, 10:30-12:00pm

Fee: \$450/15times

Portfolio (9th-12th grade)

예술 전공 학부 입시를 위한 포트폴리오 준비 과정입니다.

Instructor: Sung Ho Choi

Date & Time: Sat, 10:30-1:00pm

Fee: \$210/4times

Amazing Techno World

학생들이 레고® 브릭 부품을 이용하여 기어, 지레, 도르레, 바퀴와 축 그리고 구조의 장치를 조립해 보면서 에너지, 힘, 작동, 구조와 작용, 반작용 같은 다양한 물리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Instructor: Chris Hwang (VeritasBrain)

Date & Time: 3/10~5/26

Fri, 3:45- 4:40pm

Fee: \$240/12times + \$10 (material fee)

Robotics

레고® 마인드스톰® 프로그램은 즐겁고 흥미로운 상황에서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개념을 탐구하여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팀워크와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체험중심의 교육 과정입니다.

Instructor: Chris Hwang (VeritasBrain)

Date & Time: 3/10~5/26

Fri, 4:45-6:10pm

Fee: \$390/12times + \$15 (material fee)

Junior Coding Lab

코딩의 기초수업으로 Scratch의 그래픽 블락을 쌓아가며 이미지의 움직임과 음악을 입혀 자신만의 스토리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봅니다.

Instructor: Chris Hwang (VeritasBrain)

Date & Time: 3/8~5/24

Wed, 3:45- 4:40pm

Fee: \$240/12times + \$15 (컴퓨터 대여비)

Coding Club

게임 메커니즘과 프로그램 로직을 배우면서 비디오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프로그래밍하여 만들어 봅니다.

Instructor: Chris Hwang (VeritasBrain)

Date & Time: 3/8~5/24

Wed, 4:45-6:10pm

Fee: \$390/12times + \$20 (컴퓨터 대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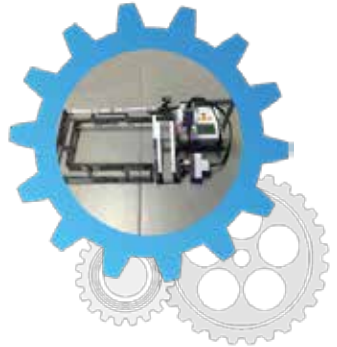
손끝으로 깨우치는 수학, 과학, 공학의 원리



레고(lego godt)는 '잘 노는 (play well)'이란 뜻의 덴마크어이다. 다양한 레고 브릭의 조립은 아이들의 소근육을 자극할수있고,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길러주어 두뇌개발에 좋고, 창의력, 공간지각능력, 추론적 사고능력을 키워줄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울수있다. 레고 교육의 가장큰 장점은 실생활에서 접할수있는것들을 만들어 봄으로써 머릿속 연상작용을 통해 논리적으로 사고할수있는 능력을 키우는것이다.

Q. 여자아이인데 시켜야할까요?

A. 여자 아이인 경우 남자아이에 비해 정교한 부분의 조작 능력과 집중력, 언어표현 능력등이 뛰어나다. 반면에 남자아이들보다 공간 지각능력이나, 구성력, 모험심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레고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여자아이들은 도전하는 적극성을 기르는 것은 물론 상상력의 발휘와 표현을 통해 공간지각력, 구성능력등을 개발하여 부족한 영역의 고른 발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Q. Lego Amazing Techno World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기어와 모터를 활용한 기계적인 원리를 단계별로 배워갑니다. 예를 들어, 저울, 도르레, 풍차, 청소기등 실생활에서 접할수있는 것들을 직접 만들어보며, 기초적인 기계원리를 발견하고 이해하도록합니다. 모형을 작동시키고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주변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증대시킵니다.

Q. Lego Robotics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여러로봇들을 조립해보고,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을 통해 첨단과학기술인 메카트로닉스와 로보틱스 개념을 학습합니다. 레고 마인드스톰은 컴퓨터 브릭, 모터와 센서들을 이용해 로봇을 조리한후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로봇과 프로그래밍이 결합된 형태로서 빛, 소리, 터치에 반응하도록 만들고, 여러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추론력을 키울수있습니다.



Q. Lego Robotics 수업과 Cording 수업이 서로 연관성이 있나요?

A. 레고 로봇수업은 로봇의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과학엔지니어링 그리고 수학을 흥미롭고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코딩을 배울수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그대로 움직이도록 수학적계산과 코딩(명령)하는 작업을 거쳐야만 로봇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VeritasBrain-



Book Publishing Club

The students were able to create their own variety of stories from non-fiction to fiction. At first, we decided to write stories about our favorite vacation. It was something fun for the students to be able to look back into the past and write down all the details. Then, I allowed them to create one short story of their imagination. We created our own characters and made completely new settings based off of what we already knew. After I understood that the students could create short stories, we decided to move onto chapter books. From there, they were able to choose an entire story line to create from scratch. We went through many rough drafts in order to come out with the perfect chapter book. Overall, the students were able to work on their vocabulary, grammar and writing skills while using their own ideas. They even did their own illustrations for each of their stories! -Sarah Kim-



The Desert Vacation

My favorite trip was going to Utah and Arizona. It took hours and hours to get to Arizona. We were in phoenix, the capital city of Arizona. At first, I didn't like it there because it was 103 degrees. We also rented a car because we couldn't bring our own car to Phoenix. Then, we drove the car down south. We also went to slide rock national park. We got to slide on slippery rocks. I accidentally bumped into a hard rock that wasn't slippery enough. Then, we went to the Grand Canyon. We went to see Queen Victoria's Stone. We also went to ride a boat tour. We used to be in Arizona, but now we were in Utah! We went to see the Rainbow Bridge. I also met an old man on the boat tour. His name was Michael. We went back to Arizona to get our car.



Once we got to Utah, we packed up. We tried booking up for mule riding, but we were too late. We went to an old tower that you can study. Then, we tried booking the mule riding again, but it was too late, again! We went biking around the town. We biked for tons of miles. We went back to Phoenix and returned the car. We went to the airport and said bye to Arizona and Utah. What an awesome vacation!

-Joshua Lee, 3rd grade-

Rome, My Favorite Trip

My favorite trip was going to Rome. It was a family trip. At first it took a lot of time to get there, but finally I got there. When I arrived I was very surprised some places were made out of marble. After we arrived, we took a taxi to our hotel we slept for rest of the day. The next day we took the same taxi to the Trevor fountain. I spent most of my time throwing coins in the water. I even saw a statue of Neptune above the water. Then, we walked to the Parthenon. The architecture was amazing. Then, we went back to the hotel for rest of the night. I always ate in the kids menu or pizza because my parents always told me to. The next day I went to the colosseum. I climbed 100 steps to get up and down. Then I went to the airport to leave. I was sad to go, but happy I ever went. This is my favorite trip because I got a chance to learn Italian. I even got a souvenir.

-Lucas Ahn, 3rd grade-



The New Magic



Jasmine and her sister Samantha went downstairs to get breakfast. They had pancakes with butter, syrup, and strawberries. Then they went upstairs to get clothes. Samantha wore a star t-shirt that was new. Jasmine wore a plain blue t-shirts. And they started to go downstairs. They did not know what to wear so they missed the show. As soon as they were there, it was closed. They were so sad and they went back to the car. Jasmine had a idea to make there own magic show. So they made a list of magic tricks and put it on a stand and they told the audience. They would have their parents and show how to do magic. They liked it.

-Charlotte Neher, 2nd grade-

[CREATIVE ENGLISH]

Drama (1st-3rd grade)

연극, 드라마의 대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이용하여 연극 발표를 위한 창의적인 대본을 만드는 수업입니다.

Instructor: Sarah Kim (Montclair University (2018), Math and Education)

Date & Time: 1/9 - 3/27

Mon. 3:45 - 5:15pm

Fee: \$288/12times

Reading Adventure (2nd - 4th grade)

학생들이 여러 종류의 리딩 자료를 분석하며 읽는 훈련을 합니다.

Instructor: Sarah Kim

Date & Time: 1/10 - 3/28

Tue. 5:15 - 6:45pm

Fee: \$288/12times

Book Publishing (2nd - 4th grade)

짧은 이야기들을 읽은 뒤 학생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써서 함께 책을 만드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Instructor: Sarah Kim

Date & Time: 1/10 - 3/28

Tue. 3:45 - 5:15pm

Fee: \$288/12times

Grammar & Vocabulary Enrichment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글을 통해 문장구조와 문법을 이해하고, 맞춤법과 어휘력을 키웁니다.

1st-3rd grade

Instructor: Sarah Kim

Date & Time: 1/9 - 3/27

Mon. 5:15 - 6:45pm

Fee: \$288/12times

2nd - 4th grade

Instructor: Suzy Choi

Date & Time: 1/12 - 3/30

Thur. 3:45 - 5:15pm

Fee: \$288/12times

Debate with Current Events (4th-6th grade)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신문을 읽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의 주장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Instructor: Suzy Choi (Georgetown University, School of Foreign Service 2012)

Date & Time: 1/12 - 3/30

Thur. 5:15 - 6:45pm

Fee: \$360/12times

Article Analysis (6th-8th grade)

경제, 역사, 의학, 철학, 심리학, 사회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기사를 읽고 토론합니다. 이 상호작용 속에서 올바른 독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자기 표현 능력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Instructor: Marc Lamparello

Date & Time: 1/13 - 3/31

Fri. 4:00-5:30pm

Fee: \$360/12times

Children's Reading Club

멘토들과 일주일에 한번씩 정해진 시간에 모여 책을 읽고 토론을 합니다. 이 상호작용 속에서 올바른 독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자기 표현 능력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1st-2nd grade

Date & Time: Tue. 4:00-5:00pm

Mentor: Amaris Kim, Jenn Chung

3rd-5th grade

Date & Time: Thur. 4:00-5:00pm

Mentor: Allie Seok

Fee: \$10/1mon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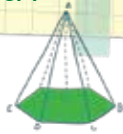
$$A+B+C+D=360^\circ$$

$$a=x^2$$

Math 경시대회를 완벽히 준비하는 KCC Critical Thinking Math



$$\left(\frac{2n}{a} - b\right)$$



미국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수학경시대회가 있다. 우수한 대학들에서 주최하여 자기 대학 이름을 걸고 하는 Math Contest가 있는가 하면, SAT같이 미국 전역에서 한 날에 치르는 시험도 있다. 수 많은 수학 경시대회 중에, 이번에는 New Jersey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시대회 4개 (Math League, AMC 8, AMC 10, BA Math Competition)를 소개하고자 한다.

1. Math League Contest

- 대상: 4학년~고등학생
- 구성: 35~40문제
- 시간제한: 30분~35분
- 시험날짜: 학년마다 다름

문제 수에 비해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다 풀 수 있는 학생이 거의 없는, 시험시간이 매우 타이이트한 시험이다. Algebra, Counting, Probability, Geometry, Number Sense까지 폭넓게 커버하며 주로 6~8학년들이 많이 치른다. 좋은 성적을 받을 경우 Bergen Academy, Bergen Tech나 기타 명문 보딩스쿨 지원에 도움이 된다. 거의 모든 문제를 각각 1분안에 풀어야 하므로 속도가 관건이고, 난이도는 다른 Math Competition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 유형과 내용이 다양하므로 Competition Math를 처음 접하거나 흥미를 붙이기 위해서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3. AMC 10 A/B

- 대상: 10학년 이하 누구나
- 구성: 25문제
- 시간제한: 75분
- 시험날짜: 매년 2월 초/중순
- 토픽범위: Algebra 1&2, Geometry, Probability, Counting, Number Theory, Number Sense

시험 보는 날짜에 따라 version A 또는 B중 하나를 보게 된다. 두 시험간 난이도는 거의 비슷하다. 배점은 1문제당 6점으로 총점은 150점이다. 보통 120점 이상 (20/25문제이상 맞힐 경우) 상위 2%정도에 해당하며, 2라운드인 AIME (3월)에 진출한다. 별도로 Trigonometry를 공부하면, 특히 17번 이후의 어려운 Geometry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이점이 있다. AMC 8과 마찬가지로 Algebra와 Geometry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흔히 자녀들에게 AMC 8을 공부시켜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쉽게 잘 나와서 AMC 10을 시켰지만, 아무리 해도 점수가 그대로인 학생과 학부모님을 자주 많이 보게 된다. 이는 AMC 8과 AMC 10사이에 난이도에 있어 상당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AMC 8의 경우 학생이 조금만 수학을 즐기고 계산이 빠르다면, 단순히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 만으로도 17개 정도는 맞을 수 있다. 하지만 AMC 10에서는 문제 푸는 양이 결과에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AMC 8에서는 3~4개 정도만 출제되는 Number Theory문제가 AMC 10에서는 양과 난이도 측면에서 대폭 넓고 깊어지며, Geometry 문제 역시 High School Geometry Honors 수업에서조차 가르치지 않는 공식을 써야만 더욱 효과적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15번이후에 대거 포진해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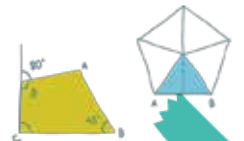
2. AMC 8

- 대상: 8학년 이하 누구나
- 구성: 25문제
- 시간제한: 40분
- 시험날짜: 매년 11월 중순
- 토픽범위: Algebra 1, Geometry, Probability, Counting, Number Theory, Number Sense

AMC는 미국에서 치러지는 수많은 수학 경시대회 시험 중에 가장 유명하고 공신력 있는 시험이다. AMC 8, 10, 12가 있으며 각 시험마다 시험날짜와 토픽범위가 다르다. AMC 10, 12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 다음 레벨인 AIME에 초청을 받게 되고, 이 초청받은 기록만으로도 MIT, Cal Tech, Yale, Brown등의 대학 지원 시 유리해진다. 모든 AMC 문제는 총 25문제이며 1번에서 25번으로 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진다. 보통 1번~12번은 쉬운/중간레벨, 13번~20번은 중간/어려운 레벨, 21번~25번은 굉장히 어려운 레벨로 꼽힌다.

AMC 8은 맞은 문제 개수가 곧 점수가 된다. 보통 25개중에 22개 이상을 맞추면 상위 1%, 18개 이상을 맞추면 상위 5%에 해당한다. 거의 모든 문제가 수식이 아닌 Word problem이므로, 글로 된 수학문제를 읽고 식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스킬이 요구된다. 여러 토픽 중에 Algebra 1과 Geometry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y(-a) + \left(\frac{1}{2} - a\right)$$



4. Joe Holbrook Memorial Math Competition

- 대상: 4학년~8학년
- 구성: 50문제
- 시간제한: 90분
- 시험날짜: 매년 10월 중순

Bergen Academy의 Math team에 의해 주최되는 시험이니만큼 문제의 전반적인 난이도도 학년에 비해 매우 높고 후반 40번 이후의 문제들은 거의 AMC 8의 20번 이후의 문제들에 버금갈 정도로 문제수준과 내용이 상당히 높다. Algebra, Counting, Probability, Geometry, Number Theory문제들이 고르게 출제되며 특히 Number Theory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Geometry문제 역시 그림이 함께 제시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의 조건에 맞는 제대로 된 그림을 스스로 그릴 줄 알아야 한다.

Competition Math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아이는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지만, 그 반대로 학교에서 All A+를 받고 있는 학생이라고 해서 Competition Math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Competition Math에서는 일반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혹은 대부분 알게만 가르치고 넘어가는 Number Theory, Probability, Counting이 항상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의 모든 경시대회 문제들은 수식이 아닌 word problem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꾸준히 word problem을 다루며 식을 직접 세워보고, 다양한 문제를 접하며 사고의 폭을 넓혀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본 KCC Critical Thinking Math 수업에서는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날짜에 맞춰 토픽 별로 리뷰를 한 후 시험날짜에 근접하면 실제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 시험에 대한 감을 높이고, 그간 토픽 별로 공부하며 숙달시킨 문제접근법과 풀이법이 어떻게 실제 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지 배우게 된다.

Kevin Ahn

US San Diego (2013) Math Dept





자녀에 대한 사랑 표현 5가지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자녀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큰 비극은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사랑하는 방식과 자녀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계신가요? 개리 채프만에 따르면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다섯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1 첫번째가 인정해주는 말,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5-3-1, 즉 다섯번 지도하고 3번 칭찬하고, 1번 꾸지람하는 것이 자녀교육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칭찬해주고,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표현하기가 쑥스러우면 문자, 이메일, 또는 카드로도 자녀에게 사랑을 고백해 놀라게 해보십시오. 요즘 각종 이모티콘들은 얼마든지 쑥스럽지 않게 사랑을 표현해주지 않습니까?
- 2 사랑의 두번째 언어는 봉사라고 합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헌신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만점을 받으실 것입니다.
- 3 세번째 사랑의 언어는 육체적 접촉입니다.**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는 아이들의 많은 수가 가정에서 따뜻한 신체접촉이 결여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하루에 한번이라도 안아주시는지요? 처음에는 쑥스러워도 서로의 따뜻한 사랑을 흠뻑 느낄것입니다.
- 4 네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자녀들과 얼마나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신지요?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은 영원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바빠도 가끔 공원이나 극장에 함께 하고 가족여행도 계획해 보십시오. 학교 음악회에 가서 연주도 들어주고 친구 이야기도 흥미롭게 들어주십시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십시오. 고교생 3분의 2가 부모와 대화를 안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웹 사이트들을 보고 어떤 게임을 하는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하며 알아보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 5 마지막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비싼 컴퓨터란 선물이 아닙니다. 작은 깜짝 선물을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실히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선물이 뇌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것을 선물로 보상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정신없이 일(봉사)하고, 그래서 비싼 컴퓨터나 선물, 차등을 사줌으로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에 바빠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신 것은 아닌지요? 부모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유형의 자녀들은 이럴때 부모의 사랑을 못느낄수 있습니다. 쑥스러워서 말이나 육체적 접촉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그 방법으로 사랑을 느끼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흠뻑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가 어떤 식으로 사랑을 느끼는지, 즉 내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가 느낄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도 부모님의 사랑을 흠뻑 느끼며 자라갈수 있을것 입니다.

김선주

포트리 고교 교사
뉴저지 교육자협의회(KAEANJ) 회장
CarePlusNJ, AWCA 상담치료사



[FUN LANGUAGE]

Chinese (K-12th grade)

발음 성조와 기본 단어를 이용해 다양하고 중요한 어휘, 문법, 표현 등을 심도있게 배웁니다.

Instructor: Ji Seon Kim

(현 Primoris Academy Chinese instructor)

Date & Time: Beginner **Mon. 3:45-4:45pm**

Intermediate **Mon. 4:45-5:45pm**

Fee: **\$100/4times**

(Private Lesson Available \$60/hour by appointment)

Korean

한국인 부모를 갖고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말을 잘 구사할 수 없어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순조로운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한인 2세 어린이들과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쉽고 즐겁고 재미있게 한국말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Instructor: TBD

Date & Time: TBD

Fee: **\$100/4times**

[SMART MATH]

Smart Math 1

산수 영재 교육 반으로 초등학교 1-2학년수준의 Common Core Standards 교과과정내용을 습득할 수 있다. 숫자에 대한 개념을 익히면서 돈을 세기, 시간에 대한 개념, 분수등도 배울 수 있습니다.

Instructor: Saelina Kim

Date & Time: 12/21 - 3/29

Wed. 3:45-4:45pm

Fee: **\$225/15times**

Smart Math 2

학교 교과과정 심화 학습으로 초등학교 3-4학년수준의 내용을 각각 학생들의 특성과 성취 수준에 맞추어 진행된다. 더하기 빼기의 정확성에 중점을 두며, 자리값, 연산 순서, 곱셈, 나눗셈, 소수, 분수에 대한 개념을 완성시킵니다.

Instructor: Saelina Kim

Date & Time: 12/21 - 3/29

Wed. 4:50-5:50pm

Fee: **\$225/15times**

Smart Math 3

초등학교 5-6학년을 위한 학교 교과과정 심화 학습으로 Middle School Math를 준비합니다.

Instructor: Saelina Kim

Date & Time: 12/21 - 3/29

Wed. 5:55 - 6:55pm

Fee: **\$225/15times**

Critical Thinking Math

Prep. for Math League and More Competitions (6th-8th grade)

2월 7일에 있는 Math League를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다뤄보고, 실제 기출 문제들도 집중적으로 풀어보면서 시험들을 대비합니다. (AMC 10 A/B, AMC 8, Joe Holbrook Memorial Math Competition)

Instructor: Kevin Ahn

(UC San Diego (2013) Math dept.)

Date & Time: **Mon & Thur. 3:45-5:45pm**

Fee: **\$240/8times**



About YPN

On the behalf of the Korean Community Center's Young People's Network, I would like to welcome everyone to a new year for YPN. We hold an annual event called YPN Night, which offers Korean-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a rare opportunity to meet and network with professional Korean-American careers people. Last year's YPN Night was a huge success, and we hope make this year's night better than ever. Last year was my first year being a part of Young People's Network, and I made lasting memories with all members, old and new. As a current YPN veteran, I wanted to make this year's night as inspiring as it was for me last year.

In the month of October, we hosted a meeting to discuss this year's catchphrase. With Walter B. Hong, a registered representative of the CFS and our special mentor for the meeting, we were able to brainstorm ideas for a catch phrase. Mr. Hong helped us and gave us advice on brainstorming, and in the end, every idea taken into consideration. Our official catchphrase for this year's YPN Night is "Being Korean in an American World."

To me, being Korean-American means being able to cherish both parts of my culture. It means that I can embrace my Korean identity, but it also means dealing with strict Korean parents. At the same time, it also means experiencing American culture, which emphasizes self-development. I love both aspects of my culture equally and wholeheartedly.

Do I classify myself as a Korean-American? Of course I do. But does society classify me as Korean-American? Absolutely not. People ask me, "What nationality are you?" and I answer, "Korean." But as they get to know me, they tell me that I don't act like I'm Korean. They tell me I'm more white than Korean. At first when I heard that, I was offended because I take pride in my heritage. But thinking about it now, they're right. Culturally speaking, I'm not Korean. I grew up celebrating American holidays like the 4th of July, Thanksgiving, and Halloween; I haven't immersed myself in Korean culture. All I know are the basics of Korean etiquette like bowing to elders and receiving money from elders on Korean New Year. However, over time, I've realized that as a Korean-American living in America, I need to cherish my culture and show what it truly means to be Korean-American. Too many Korean-Americans believe that their heritage is not important. I believe that it's truly important to keep in touch with my cultural roots, and I hope that other Korean-Americans can do the same. Through YPN Night, I'd like to give the opportunity to connect with Korean culture to current Korean-American high schoolers. The Young People's Network committee is excited for another successful YPN Night in the upcoming year!

Eric Lim

YPN Student Committee



Young People's Network(YPN)

YPN was initially established to create opportunities for high school students to meet and network with accomplished and successful young adult members of our Korean American community. Since the first YPN Night in 2005, the number of past student committee members and past panelists has grown throughout the years, generating a YPN Alumni. As a result, since 2010, YPN Alumni dinners have been organized to provide all past and present students and panelists a separate occasion to meet and socialize together. Past panelists are vital to YPN and have been offering ongoing mentorship to student committee members. YPN has become an invaluable resource for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 Americans to receive guidance and assistance toward achieving their dreams and goals, as well as the opportunity to network with YPN alumni.

YPN Student Committee

Each year from September to May, a student committee consisting of selected high school students (8-12th grade) meets twice a month to plan and organize YPN Night by choosing topics, inviting panelists and motivating local high school students to attend, engage in lively discussion, and solicit advice in career pursuits. Throughout the process, the student committee members will learn to develop:

1. Leadership
2. Civic Responsibilities
3. Networking
4. Pride in Korean Heritage

Student Committee Meeting Dates:

September, 2016 – June, 2017 at 6:30pm (2nd and 4th Thursdays)

YPN Night

The first Young People's Night was held on December 29, 2005 facilitated by the YPN Parents Council. Since then, the program has successfully continued every year. Starting in 2007, the program has been planned and organized by Student Committee members and supported by the YPN Parents Council. The event strives to introduce high school students to many different paths they can take to succeed and provide guidance so that they may be able to achieve their dreams and goals. During the event, high school students listen to invited panelists and engage in lively discussion while soliciting advice. We hope that by the end of the night, Korean teens will go home with a sense of Korean pride and a strong impetus to want to succeed not just for themselves, but also for the entire Korean Community.

Date: April 01, 2107 at 6:30-9:30pm (Dinner is served)



Identifying Yourself As A Korean American



Even though I was born in the United States, until my first year of kindergarten, Korean was the only language that I spoke. My grandparents, who were my babysitters, spoke mostly Korean, and this was the first language I learned. English was foreign to me: my speech was clumsy, awkward, and I could never form a coherent sentence. Because of this language struggle, I felt separated from other people, and saw a distinct division between Koreans and Americans. Non-Koreans were strangers, wholly and thoroughly different from who I was. I felt most comfortable around people that were Korean. I identified myself as Korean.

My first step into kindergarten blurred the line that I had drawn between Americans and Koreans. It also changed the way I identified myself. In kindergarten, nobody spoke or understood Korean. This was a world with fries instead of kimchi, forks instead of chopsticks, waving instead of bowing, and a scarcity of Korean people. As I ventured deeper into this world, slowly, the way I identified myself began to change; I molded myself to mirror the environment that I saw at school. The most significant change was my preference for speaking English instead of Korean. In my eyes speaking Korean had become a sign of being an outsider. I grew distant from my old Korean friends, and the frequent conversations in Korean with my parents and grandparents came to a halt.

By the time I entered middle school, I didn't feel Korean any more. My middle school was primarily Jewish. The number of Korean people I interacted with shrunk further. I was no longer comfortable around people who spoke any language other than English. I had grown to be awkward around other Korean people. I had essentially forgotten my Korean childhood. I had forgotten the preschooler who saw himself as Korean and only Korean. Being American had become more important than being Korean.

In seventh grade, I went to a lot of bar and bat-mitzvahs. As I watched



my friends embracing and cherishing not only their childhood, but their Jewish heritage, I began to see what I had lost along the way. I was neglecting a part of myself. I realized that the American part of me was not only who I was. I sought to immerse myself in the Korean world once again, and understand the world that I was inevitably a part of.

The search for who I am, my identity, remains a struggle to this day. But now I can confidently announce that I am not singularly Korean nor American. Both worlds have formed who I am, and will continue to shape my identity. Both Korean and English, are forms of communication that represent my identity. As a sophomore in high school, speaking both languages every day is a goal for me. This practice is something that will constantly remind me of who I am, and how I view myself. Both as a Korean and an American-- identifying myself as a Korean-American.

William Han

YPN Student Committee



YPN Alumni

Q&A with Se Yong Lee

Q. How and when did you figure out that you wanted to have your career?

A. I combined something I enjoyed and something I was good at when choosing my career. I knew I wanted to pursue a career in the hospitality industry when I realized how much I enjoyed making others feel genuinely appreciated. I also happened to be good at math, which is why I pursued an analytical angle with my career in the hospitality industry.

Q. How did you overcome any challenges as a Korean-American in your career?

A. I overcame racial challenges throughout my education and career by being confidently honest with myself. Rather than trying to be something I'm not, I was always the proudest of my culture and family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was.

Q. What do you think about YPN and how it tries to connect high schoolers with current careers people?

A. I believe YPN is essential to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current Korean-American high schoolers. Frankly, not only Korean American high schoolers, but all high schoolers often have difficulty clearly communicating with their parents about their careers and whatnot because of the generation gap between the high schoolers and their parents. I believe YPN helps fill in that generation gap by allowing Korean-American high schoolers to meet and chat with Korean-American young professionals who not only may be more approachable to high schoolers than their parents, but also have experienced more similar pasts to the current high schoolers.

Q. Do you have any advice for current Korean-American high schoolers who want to pursue a career in the hospitality industry?

A. For now, listen to your parents. I promise you – your parents will help you get into a good school. Once you've completed your education, be different by always asking why and coming to your own conclusion, as personality goes a far way in the hospitality industry.

Se Yong Lee served as a YPN student committee member in 2008-2010. Se Yong has completed his bachelor's degree for Hospitality and Management at Cornell University. After completing his degree, he is now currently a financial manager-in-training at the Kimpton Hotels & Restaurants in Washington D.C.



Save The Date

The KCC Board of Trustees cordially invites you to attend
the 8th YPN Alumni Dinner on Thursday, June 8th, 2017 at 6pm

Venue: Yale Club of New York City

50 Vanderbilt Ave, New York, NY 10017

This Alumni event promises to be memorable, as all Alumni will have a chance to reconnect. The event will showcase and highlight recent and past successes of Alumni, YPN Night and the Korean Community Center. Dinner will be complimentary to all Alumni.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며!
밝고 긍정적으로!
즐거움이 넘쳐나는!

KCC SUMMER CAMP

Jun. 26-Aug. 18, 2017

- 유창한 이중언어 선생님과 함께하며 배우는 영어와 한국어
-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우는 우리 전통문화
- 자연스럽게 성취감, 자존감, 동기, 창의력을 키워나가는 프로그램
- 매일매일 신나게 건강해지는 수영, 태권도, 축구, 댄스
- 엄마손맛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한 집밥같은 런치
- 언니오빠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돌봄



대상 : K-5 학년

시간 : 월~금 9:30am-3:00pm

수강료: Full Day \$ 280/week (런치 포함)

Half day \$160/week

2-4주: \$270, 5-6주: \$265, 7-8주: \$260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테너 지양길의 노래교실



우리는 누구나 어릴 때부터 동요를 부르고, 학창시절에는 음악시간이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노래를 접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친구들과 모여 흥이 무르익으면 역시 노래를 부르곤 하는, 풍류와 끼가 있는 민족이다. 나도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특히 노래 부르는 것을 매우 좋아해서 결국엔 음악인이 되었다. 사춘기 변성기에는 목을 아끼라는 선생님의 권고로 바이올린을 전공했었지만, 노래에 대한 열정은 여전하여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 성악을 공부하였고, 카네기홀 공연을 시작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이태리까지 가게 되었다. 이태리에서는 당대의 세계적인 성악가 Tenor Ferruccio Tagliavini를 만나 사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분은 내가 중학교 때 보았던 '물망초' 영화에 나온 주인공의 노래를 부르신 분이였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 배움을 얻고, 나 또한 성악가로서 40여년 이상을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동남아 등 세계 무대에서 수많은 공연을 했고, 한국에서도 바쁘게 연주 활동하며 성악 전공자들을 가르쳐 왔다.

은퇴하고 우연히 부탁을 받아 시니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게 되면서 느낀 것은, 노래하러 오신 분들의 표정이 처음에는 무표정 하다가도 수업을 하면 할수록 차츰 밝고 활기차게 바뀐다는 것이다. 노래 부를 때마다 얼굴에 화색이 돌고, 목소리가 커지고, 생기가 도는 모습을 보며, 노래 부르기가 우리들의 마음을 젊게, 건강하게 하는 것을 체험하며 가르

치는 보람을 느낀다. 사람들이 나를 나이보다 훨씬 젊게 보는 것도 평생 노래하며 얻은 건강 덕분이다. 사실 지금도 피곤하다가도 노래만 부르면 힘이 나곤 한다.

실제로 노래를 부르면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좋아진다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연구팀의 실험 연구조사 결과도 있다. 연구결과 보고에 의하면 노래를 부르면 신체의 면역력이 증대되고 명상과 걷기운동을 한 것과 같은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노래는 좋아하고 부르고 싶는데 자신이 없는 분, 입만 열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분들, 혼자서는 잘 흥얼거리는데 남들 앞에 서면 주눅 드는 분들 모두 환영한다. 강의에서는 호흡법, 발성법, 벨칸토 창법, 감정 처리법 등 노래를 하기 위한 기본기를 배우고, 나아가 우리가곡과 세계가곡, 클래식, POP 등으로 다양한 곡들을 함께 부른다. 그 동안 모두 바쁘게 열심히 살아 오셨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을 내서 노래 부르며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란다.

테너 지양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콜리어드 음악대학 수료
뉴욕 카네기 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 단원 경력 등



KCC 노래교실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창가에 계절의 변화도 여유 있게 바라보고, 친구도 만나고, 젊은 시절 즐겨 불렀던 노래도 부르면서 나이를 잊고 산다. 노래를 부르면서 어울리지 않는 나이에 꿈의 나라를 떠본다. 가을날 갈대 숲도 걸어보고, 쌀쌀한 날씨에 김이 모락 나는 차 한잔 놓고 좋은 사람과의 대화. 오늘은 꽃 그림, 문예구름 그림, 보리밭 황금빛 그림, 둥근 얼굴 그림, 찬란한 젊은 날의 아름다웠던 얼굴을 그려보며 내가 그 얼굴의 주인공처럼 마냥 행복해진다. 이 나이에 건강 주셔서, 매우 기다려지는 음악시간 가질 수 있음에 저에게 축복이며 감사한다. 노래는 최고의 건강 유지 법! 조금이라도 정확하고 수준 있게 가르쳐 주시려는 지양길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허혜경-

[MUSIC]

Guitar for Everyone

클래식, 가요, 팝송 등 다양한 음악 장르에 맞는 멜로디 연주법과 반주법을 동시에 배우며,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Instructor: Jae Young Jeong (NYU JAZZ 석사)

Date & Time :

Beginner: Mon. 4:30-5:30pm

Intermediate: Mon. 5:30-6:30pm

Fee: \$80/4times

(Private Lesson Available \$50/hour by appointment)

Ukulele (우쿨렐레)

연주할 때의 화려한 손놀림이 벼룩이 튀는 것처럼 보여 "벼룩"을 뜻하는 하와이어 "uku"와 "뛰다"는 뜻의 "lele"가 합해진 단어인 우쿨렐레! 아름다운 시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는 우쿨렐레를 배워봅시다. (악기지침 필)

Instructor: Sunwook Park

(한국우쿨렐레음악협회 전문강사)

Date & Time : Mon. 10:00-11:00am

Fee: \$80/4times

지양길의 노래 교실

클래식은 물론 가곡과 팝 등 다양한 장르를 기초 발성법과 호흡법부터 감정처리와 테크닉까지 노래 부르기 위한 모든 요소를 배웁니다.

Instructor: Yang Gil Ji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콜리어드 음악대학 수료)

Date & Time : Tue. 12:40 ~ 1:40pm

Fee: \$20/4times

다음은 정기적으로 노래를 불렀을때 나타나는
볼프람 자이더너 교수의 조사결과입니다.

- 호흡이 개선되어 산소 호흡량이 늘어나고 순환기에 자 극을 줘 신체를 균형 잡히고 활력 있게 한다.
- 표현력이 향상되고 창의력이 발휘되는 등 정신적으로도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음악적 경험은 업무능력의 향상을 가져와 다른 직업 분야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특히 노래를 많이 하면 목소리를 통한 표현 능력이 증대되고, 이는 대화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등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 목소리를 젊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폐경기에 들어서는 여성들은 노래 부르기를 통해 목소리의 노화를 막을 수 있다.
- 노래를 부르면 신체의 노화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

Adult Continuing Education

[ART]

Pottery

실생활에 사용되는 컵, 꽃병, 그릇 등을 물레기법, 꼬박 밀기, 성형, 유약 바르기, 초벌/재벌 구이 등의 방법으로 제작하는 것을 배웁니다.

Date & Time: **Thur. 10:00-12:00pm**

(Instructor: TBA)

Thur. 6:00-8:00pm

(Instructor: Youngsil Song)

Fee: \$120/4times

Calligraphy

한문, 한글 등 서예의 다양한 기법을 배우며, 개인의 인격수양, 평상심, 인내심 그리고 강인함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Instructor: **Grace Y. Kim**

Date & Time: **Tue. 9:30-12:00pm**

Fee: \$100/4times

Watercolor Painting

정물, 풍경, 인물 등 그림의 기본 구도 및 구사와 질감 표현, 빛과 그림자, 명암과 그 대비까지 회화의 다양한 기법을 배웁니다.

Instructor: **Ho Bong Kim**

Date & Time: **Wed. 10:00-12:00pm**

Fee: \$145/4times

Korean Brush Painting

한국화의 미로 한국적 감성을 이해하고 절제와 여백의 미학을 배우며, 채색으로 현대화의 절묘한 조화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Instructor: **Soo Jin Han**

Date & Time: **Thu. 10:30-12:30pm**

Fee: \$120/4times

All in One Art

미술의 기본인 드로잉 (연필, 목탄)부터 시작하여 파스텔화, 수채화, 유화 등 다양한 기법을 배우는 성인 미술 심화 과정. 소정의 훈련기간 후 미술관, 화랑가를 탐방하며 뉴욕미술을 체험하는 기회를 드립니다.

Instructor: **Sung Ho Choi**

Date & Time: **Fri. 10:00-11:30am**

Tue. & Fri. 2:00-3:30pm

Fee: \$120/4times

Digital Photo Program

사진의 역사나 이론 등 어렵고 딱딱한 수업방식을 지양하고, 사진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사진 촬영방법과 이미지 리터칭(Lightroom, Photoshop) 프로그램을 사용해 촬영된 이미지들을 쉽게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Instructor: **Bojune Kwon**

Date & Time: **Tue. 10:00-11:30am**

Fee: \$120/4 times



모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1 DAY 페인팅



심심하고 지루한 모임을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친목회, 회사모임, 연말연시 모임 등 뜻깊은 만남의 자리를 KCC의 유익한 프로그램과 함께 하세요.



원하는 시간과 날짜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편안하고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캔버스위에 그림 그리며 친목을 도모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일체를 준비해 드리며, 그림을 처음 그리는 분도 강사의 친절함 지도로 나만의 작품을 완성합니다.



* 모임예약은 최소 한달 전 까지 하셔야 합니다. 소요시간: 2시간



연말 오피스 파티를 언제나와 같이 식당에서 계획하던중에 KCC의 wine & painting 이벤트에 대해 접하고 기억에 남는 모임이 될 것 같아 KCC에서 연말 파티를 하게 되었다. 우리모두 미술에 문외한이라 예상이 불가능했으나, KCC에서 우리가 원하는 음식, 와인, 음악을 다 허락해 주었고, 좋은 작가님과 더불어 재료가 모두 준비된 상황에서 그림과 웃음을 통한 힐링, 기억에 남는 어드벤처와 함께 소장할 그림까지 결과물로 얻게 되었으니 KCC의 이벤트들은 정말 우리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귀한 비밀인것 같다.

Judy Chang, Esq. ”



보통의 연말파티와 달리 공간에서 같이 웃으며 좋은 와인 나누는 좋은 자리였어요. 그리고 작가님의 열정과 성의있는 가르침으로 좋은 성과물도 가지고 갈수 있어서 더욱 좋았구요. 늦게까지 아늑한 공간을 제공해주신 KCC에게도 감사드립니다.

Chris Park ”



소중한 사람들과의 즐거운 모임을!

KCC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해 드립니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유화작품 그리기, 댄스교실** 부터 다양한 **인문학, 미술, 음악 세미나**까지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임의 성격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구성해 드립니다.

*문의: 201-541-1200 ext.111



독서수다클럽의 매력



책 읽기를 항상 즐겨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KCC 독서수다클럽을 통해 폭 넓은 독서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매우 기쁘다. 다방면의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을 접하면서 책 속에 전개되는 작가의 세계를 경험하고, 또 각자가 이해한 책의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여러 감정들의 힐링을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한국 작가 권비영씨가 쓴 ‘덕혜옹주’를 읽었을 때는 울분의 감정이 올라오음을 느꼈다. 우리 민족은 일제 치하 36년 역사를 겪은, 일본에 많은 한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 독도 영토분쟁과 위안부 문제 등 아직도 역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도 많이 남아있다. 그런 면에서 조선의 마지막 공주 ‘덕혜옹주’의 일본에서의 삶은 잠재되어 있던 내 반일감정을 되살아나게 했다. 한국인이지만 한국 국적이 없고, 그렇다고 일본인도 아닌 불분명한 국적과 신분으로 인해 갖은 수모의 슬픈 삶을 살다간 ‘덕혜옹주.’ 나라 잃은 삶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삶인가를 깊이 느끼게 했다. 미국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새삼 깨닫게 했다.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삶의 한가운데’를 읽었을 때는 사랑과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지 절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주인공 ‘니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나치 정권에 저항하며, 여자로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치에 열광적으로 도전하는 어려운 삶을 택한다. 또 다른 주인공인 ‘슈타인’교수는 외모가 그리 매력적이지도 모자랄 것도 없는, 자유분방한 ‘니나’를 사랑하면서 끝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 인간은 왜 많은 고통을 통해서만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다.

매주 화요일, ‘오늘은 무슨 대화를 나눌까?’ 하는 설레는 기쁜 마음으로 KCC 독서수다클럽에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토론한 두 권의 책 만을 소개했지만, 이 시간은 폭넓은 문학의 세계를 넓지만 깊이 있게 음미할 수 있는 시간임을 알리고 싶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항상 책의 줄거리를 정리하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토론에 도움이 되는 연관되는 여러 지식과 책을 소개해 주시는 김성은 진행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 싶다.

-문성인-



Walden을 읽고



오랫동안 서울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다가 뉴저지에서 살게 되면서, 마당에서 뛰어 노는 청설모와 토끼, 마을 곳곳을 유유히 배회하는 사슴 가족을 보며 자연의 경이로움과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KCC 북클럽에서 접한 헨리 소로우의 ‘Walden’은 대자연 속에서 간소하게 사는 기쁨과 그 필요성을 아름답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 오두막집을 직접 짓고 자연을 벗 삼아 자급자족하는 삶이란 매우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치안, 위생, 추위, 아이들 통학 등의 문제로 실제로 그렇게 살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작가조차 Walden 호숫가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2년 동안의 실험으로 끝마쳤다는 것은 자연주의적 삶의 구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가며,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대면하고자 했던 작가의 정신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쫓으며 자신을 잃고 마는 현대인들이 스스로를 되찾는데 중요한 안내자가 되어 주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시고, 깊이 있는 설명으로 책의 이해를 도와주시는 북클럽 김성은 진행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규민-



[FUN ENGLISH]

KCC Daily English

상황별 영어로 미 문화에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Instructor: Jenny Kim

(TOFEL 강사, High School English Tutor 9년)

Date & Time:

Beginner Tue. & Thu. 11:00-12:30pm

Intermediate Tue. & Thu. 9:30-11:00am

Fee: \$160/8weeks (\$8 교재비 별도)

English Private Group for Adult

(By appointment only)

Fee: \$90/4 Times

[LANGUAGE]

Korean for Adult

한인 2세와 외국인에게 한국어의 이해와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기본적인 필수 단어들을 중심으로 정확하고 실용적인 한국어를 배웁니다.

Date & Time: TBD

Fee: \$120/4times

Chinese for Adult

중국어 입문 회화부터 발음 및 문장 첨삭 지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어를 쉽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Instructor: Sun Mi Lim (중문학 박사/ 대학 강사 역임)

Date & Time:

• Beginner: Tue. 10:00~10:55am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1)

• Intermediate: Tue. 12:00- 12:55pm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2)

• Advanced: Tue. 11:00-11:55am
(다락원 중국어 마스터 4)

Fee: \$120/4times

독서 수다 클럽

느리게 생각하기, 함께 생각하기, 생각 나누기! 읽고 싶은 책을 읽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해 봅니다.

Instructor: Seung Eun Kim

Date & Time: Tue. 1:00-2:30pm

Fee: \$10/1 month

Adult Continuing Education

[COMPUTER]

Computer - Internet

컴퓨터의 기본 활용 능력(웹 정보, 이메일,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신문과 드라마 보는 방법)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Instructor: Seong Hwan Seo
Date & Time: Wed. 9:30-11:00am
Fee: \$60/4times

Computer - Google Apps/ MS Office

인터넷 상으로 사용 가능한 Docs(워드), Spreadsheets(엑셀), Slides(프리젠테이션), Google Drive(파일 저장/나눔) 등을 배웁니다.

Instructor: Seong Hwan Seo
Date & Time: Wed. 11:00-12:30pm
Fee: \$60/4times

*Private Lesson available.
\$50/hour by appointment

[EDUCATION]

한국역사 Session V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가 봅니다.

Instructor: Jaenam Kim
(고등학교 교사 전 테너플라이 한글학교 교장)
Date & Time: Wed. 4:00-5:30pm
Fee: \$10/1 month

Classic Music History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 음악에 이르는 서양 음악을 생활속에서 쉽게 접하는 음악들로 친근하게 접근 합니다.

Instructor: Chan Kim
(New York Music School Director,
Columbia University 음악교육학 석사)
Date & Time : Wed. 10:00-11:30am
Fee: \$10/1 month

서양 미술의 재발견

[사회변혁기의 조형미술]

18세기 말 계몽주의 대두와 절대왕정의 붕괴로 시작된 일련의 사회변혁운동 및 혁명을 중심으로 급격한 사회변혁이 조형미술과 미술작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1 19세기 민족주의와 조형미술, 2월혁명, 7월 혁명
4/5 산업혁명과 미술운동, 남북전쟁
5/3 카메라의 등장과 인상주의, 제국주의와 식민지 개척
Instructor: Kyunghee Pyun
(현 FIT 미술사학과 교수)

Date & Time: First Wed. of every month
12:30-2:00pm
Fee: Member Free

KCC 인문학 동양 전통 사상을 찾아서

우리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이끌어 가는 미국의 힘은 여러 민족의 정체성이 어울려 화합되어 시너지를 내는 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 땅에서 명륜학회는 지난 30년 간 윤리를 밝히며 우리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서삼경(사서 -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삼경 - 시경, 서경, 주역) 등을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서양 문물과 사상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20세기 조선왕조 말까지 우리는 5000년 이상의 정신문화의 전통을 한자로 기록된 한문을 통하여 배우고 전승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 이름과 일기 등 기록된 것은 모두 한문입니다. 근세의 한국인들에게는 유교의 사상이 최근 700년간 우리의 생활 풍속과 생각의 중심이 되었고, 우리 할아버지들은 한문으로 기록된 유교경전인 사서삼경을 가르쳐 교육의 기본을 삼고 국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과목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 사상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한인의 후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2016년 12월부터 동양고전 중심의 인문학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배어 있는 이러한 사상을 현대적 의미의 정신문화와 연결하여 '대학'과 '주역 계사전상' 두 과목을 우선으로 강의합니다.

대학은 가정과 사회에 <삼강오륜>을 근거하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순차적으로 말하고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으로 결론을 내린 사회 리더를 교육하기 위한 책입니다. 주역 계사전상은 동양에서 우주의 변화를 고찰한 '주역'의 본질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생각의 뿌리를 찾아 한국인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시거나, 동양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문을 익힐 기회, 또 한자를 더 잘 읽고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본 강의가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동양

의 역사, 철학, 사상, 문학 등을 공부하려는 젊은 2세들에게도 배움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도련 이경식
뉴욕 명륜학회 강사 (한문통론, 중국어, 동양철학사, 장자, 불교 사상)
명륜학회 수학 (1992 ~ Present)
지산 박상윤
뉴욕 명륜학회 강사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주역)
명륜학회 수학 (1992 ~ Present)

강의계획

01/04/17	휴강	
01/11/17	대학 - 성의(誠意)	계사전 - 과와 효의 쓰임
01/18/17	대학 - 정심(正心)	계사전 - 천지 대연의 수
01/25/17	대학 - 수신(修身)	계사전 - 역의 쓰임의 네가지
02/01/17	대학 - 수신제가(修身齊家)	주역 - 건괘 (1)
02/08/17	대학 - 제가치국(齊家治國)	주역 - 건괘 (2)
02/15/17	대학 -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1)	주역 - 건괘 단전 (1)
02/22/17	대학 -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2)	주역 - 건괘 단전 (2)
03/01/17	대학 -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3)	주역 - 건괘 문언전 (1)
03/08/17	대학 -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4)	주역 - 건괘 문언전 (2)
03/15/17	대학 - 주자서(朱子序) (1)	주역 - 곤괘 (1)
03/22/17	대학 - 주자서(朱子序) (2)	주역 - 곤괘 (2)
03/29/17	대학 - 주자서(朱子序) (3)	주역 - 곤괘 단전 (1)

일주일에 2번!

파워라인 댄스로 경쾌한 음악에 스텝을 맞춰 춤추며 건강해지는 시니어 라이프!



신나는 음악과 함께 Power Line Dance 수업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회원님들의 얼굴엔 땀과 미소가 가득하시고 수업이 언제 끝났는지 모를 정도로 지루함들이 없으며 밝은 미소로 말씀 하십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스텝을 익히며 기억력 향상 및 치매발생의 감소등 규칙적인 운동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운동으로 우울증이나 무력감, 불안감을 해소하여 노년기에도 활발하고 희망찬 생활을 할 수 있는 Power Line Dance을 수강하는 회원들을 소개합니다.

“

일요일 저녁이 되면 월요일에 KCC 에가서 POWER LINE DANCE 를 할 생각에 몸이 근질근질 해진다. 건강을 위하여 여러가지 운동을 해보려고 노력해보았다. Yoga등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나에겐 앉아서 하는 정적인 운동보다 신나는 음악에 팔다리를 움직이게 몸에 더 좋다. 특히 젊은 선생님께서 열정으로 너무 열심히 가르쳐주시니 기를 받는것 같다. 55 세 이상 회원들에게가벼운 운동이며 일주일에 두번 회원들을 만나 친목도 다질수 있고 댄스를 배워 신나고 이렇게 좋을수가 없다, 더 많은 회원 특히 남자들이 참석으면 한다. 나도 70 이 훨씬 넘었는데 하니, 못할. 회원은 한사람도 없을거라 믿는다. 심신에 너무 좋다.

-이근호-

“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니 운동도 되고 기분전환이 되며 혼자서도 출수 있는 춤이지만 여럿이 같이 추니 재미 있고 사람들과 만나 같이 즐길 수 있으며 일정한 패턴의 반복되는 춤을 몸이 기억하며 움직이는 것이 기억력감퇴 및 치매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몸 움직임을 크게 하면서 운동량도 많아져 몸이 따뜻해지고 땀도 나니 건강에도 좋다. 더 많은 분들이 참가하여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

-박자영-

“

일주일에 2번 Power line dance 를 월요일과 수요일에 하고 Stretching class 를 금요일에 하면 딱 제몸에 맞는것 같다. 특히 가르치는 선생님도 전문적이고 재미있어 다음 클래스가 기다려지는 시간을 입니다. 남편과 같이 하면서 더 즐겁고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장경옥-

여러가지 동작들을 이론적인 설명과 함께 가르쳐주시니 자세를 취하는데 내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으니 더 좋은거 같다.

-김현우-



메디케이드 없이도
무료 홈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 상:

- 버겐카운티에 사시는 60세 이상의 노인환자나 18세 이상의 장애인
-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만성질환으로 홈케어가 필요하신 분들 중 메디케이드가 없는 분
- 월 수입 \$3,614 (혼자), \$4,873(부부) 이하 이신 분들

KCC의 케어 매니저가 뉴저지 정부보조 프로그램 신청을 무료로 도와 드립니다.

담당: Anna Lee, Taehyun Shin
문의 및 예약: 201-541-1200 ext.111



[Long Term Care 프로그램]

- 1.KCC 은퇴클럽에 가입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회원으로 KCC 장기간호 프로그램을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운동과 댄스, 노인법위크샵, 컴퓨터, 자원봉사 프로그램, 여행 등 은퇴 클럽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 3.장기간호가 필요하게 될 때는 KCC의 소셜 워커가 집을 방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 4.서비스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드리고 서비스도 연결해 드립니다.
- 5.서비스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보험이나 정부보조가 가능한 경우 경제적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실버타운 건립 프로젝트]

- 1.실버타운 건립위원회 설정
- 2.실버타운 건립 프로젝트(20million)를 위한 기금 모금 캠페인 목표 - 4million
- 3.실버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현재 KCC에서 멀지 않으며(30분 이내)
환경 좋고 교통 편리한 장소로 약 5-10 에이커
- 4.실버타운 시설계획
KCC 실버타운은 종합시설로 studio, one bed room, two bed room 50 아파트와 수영장, 체육관, 식당, 아트스튜디오, 세미나 교실, 컴퓨터교실 등 시설 포함 약 80,000-100,000 스퀘어피트
- 5.예정 건립기간 5-10년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건강 증진 기여에 긍지를 느낍니다.

최상의 진료와 치료! 잉글우드 병원 메디컬 센터!



EHMC 잉글우드 병원 메디컬 센터
미주 **100위** 내 병원 2년 연속 수상



8년 연속 수상



환자 만족도 **2년** 연속 미주 병원 탑 **5%**



ENGLEWOOD

HOSPITAL AND MEDICAL CENTER

The Center for Korean
Health and Wellness
잉글우드병원 한인건강센터

한인 전용 상담 전화 201-608-2341

englewoodhealth.org

한국 전통음악과 무용의 밤이 11년째 올해도 성황리에!

한국인의 뿌리를 인식하는
뜻깊은 행사에 우리의 2세대들이 함께!

지난 11월 12일 토요일 제 11회 한국무용의 밤 “한국의 소리에 온가족이 함께” 행사가 창작 국악 그룹 ‘들소리’의 연주로 150여명의 한인동포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국악을 현대 음악과 접목시킨 들소리의 연주와 워크샵은 한국 전통 음악의 신명과 에너지를 선사하였으며 대고, 소고, 징, 거문고, 가야금 연주가 주는 흥분과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창 의 매력 속에 빠져들어갔다 특히 우리 2세 어린이들은 사물놀이를 직접 배워보며 한국 전통 음악과 악기가 주는 매력과 장단이 주는 재미를 느낄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한국인의 뿌리를 인식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한국전통복식의 아름다움

한복



한복은 한국의 전통 복식이며 민족 복식이다. 미국은 다인종이 모여 사는 나라이다. 미국에는 미국의 전통 복식과 민족 복식이 없지만, 미국 사회는 그 사회가 가진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17세기 이후 서구 패션의 역사를 보면 중국의 치파오나 일본의 기모노 등 동양의 민족복이 미친 영향은 지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서는 한복에 관심을 가진 서구 디자이너도 등장했다. 캐롤리나 헤레라, 칼 라거펠트, 장 폴 고티에와 같은 하이패션 디자이너가 한복의 구체적인 요소에 영감을 얻은 작품들을 발표했다.

한복은 한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이 향유하는 문화 리소스가 되었다. 이들이 한복의 미를 글로벌 스테이지에서 바로 표현하고 조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한복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잘 연마하고, 학문으로 정립하고,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김민지

서울대 의류학과 박사
한국복식사학자



Korean Culture & Heritage

Korean Culture Resources Room (한국문화 자료실)

한국전통 문화 유산의 소중함과 계승을 위해 민속악기와 의복, 탈, 자료 등을 보관 및 교육하고 있습니다.

Korean Culture Resources Rental (한국문화 물품 대여)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 문화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학교 및 도서관 등의 비영리 단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국 문화 관련 물품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물품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 문화 관련 전시를 비롯한 교육 및 체험행사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Play & Learn, Korean Culture Summer Camp (한국 전통문화 체험 여름캠프)

여름방학 동안 전래동화로 연극도 하고 전통무용과 음악놀이, 전통 공예품과 한국 전통에 대한 공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를 체험합니다.

Korean Traditional Dance & Music Night (한국 무용의 밤)

2006년부터 한국 전통 음악과 춤의 고귀함을 인식시키고 문화적 주체성을 심어주며 한인동포들과 타민족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매년 11월 첫째주 토요일 한국 무용의 밤 공연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공연뿐만 아니라 체험 워크샵을 통하여 더욱 쉽고 즐겁게 한국 전통 무용과 음악을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26년간의
통증 치료

김치갑 통증 치료과



Dr. 김치갑
Chee Gap Kim M.D

교통사고, 직장상해, 관절염, 어깨무릎
통증, 목 허리 디스크, 척추주사,
관절주사 한방침

- 서울대 의대 졸업
- 뉴욕 주립대학 재활의학과 전문의 과정 수료
- 헉켄색 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역임
- 미국 근전도 전문의
- 미국 통증 전문의
- 현 김치갑 통증치료과 병원장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T: 201-541-1111

The 5th Kyung-Uhn Scholarship Speech Contest of Greater NY On Korean History, Culture and People



Date: **Saturday, April 29, 2017 at 10:00AM**

Location: Korean Community Center (100 Grove St., Tenafly, NJ 07670)

1. Choose one current aspect of the seven-decade-long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discuss its historical background and impact on Korean people and world politics.

Topic

70년이 넘도록 분단된채 남아있는 한반도의 현재 상황 하나를 선택하고 그 역사적 배경과 그것이 한국민족과 세계 정세에 미친 영향에 대해 토론하십시오.

2. Choose one individual or one aspect of Korean culture and discuss how each has affected both the lives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global community.

한국뿐 아니라 세계역사에 영향을 준 인물, 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의 문화를 선택하여 토론하십시오.

*Language: **English** *Length of Speech: **4-6 minutes** *Eligibility: **Students in grades 9-12**

*Application form: download from <https://kscholarship.org>

*Deadline for manuscript submission: **Sunday, February 26, 2017**

*Please, go to FAQ for important guidance for manuscript preparation at <https://kscholarship.org>

AWARDS: First Prize: \$1,000, Finalists (4-6 persons): \$100, 2nd Prize (2 persons): \$500
3rd Prize (3 persons): \$300, Special Award for Best Research: \$300

Inquiries: <https://kscholarship.org>, speech@kscholarship.org, 201-306-0200, 917-734-9346, 718-350-6836

Hosted and sponsored by Kyung-Uhn Scholarship Association of Kyunggi Girl's High School AA of Greater NY, 경기여고 뉴욕지구 동창회 경운장학회
Supported by Korean Community Center, Korean Amer. Educators' Assn of NJ, Korean Amer. Teachers Assn of NY, National Assn of Korean Schools, NE Chapter

선성욱 내과 의원

Sung wook (David) Sun, MD



리세기의 수준 높은 내과 진료
의사-환자 간의 의사소통과 신뢰

일반내과

건강 검진/혈액검사/건강 관리와 증진/고혈압/당뇨병/갑상선 질환/비만/성인병/노인성 질환

200 Grand Avenue, Suite 203, Englewood, NJ 07631

T. 201-944-3115

F. 866-278-9484



이윤석 발 전문의

Yoon S.Yi, DPM
Podiatry

NJ FootCare of Flushing
Ridgefield Podiatry Associates

뉴저지 플러싱 발병원
725 Grand Ave. #101/102
Ridgefield, NJ 07657
Tel. (201) 840-8105

FootCare of Flushing

플러싱 발병원
142-23 37th Ave. #CF1
Flushing, NY 11354
Tel. (718) 939-9858



LEARNING AND GROWING.
INSPIRING AND CARING.
HOPE AND OPPORTUNITY.

WE SALUTE THE KOREAN COMMUNITY
CENTER FOR ITS COMMITMENT TO
SHARING KOREAN CULTURES WITH THE
NEIGHBORING COMMUNITIES WHILE
CONTRIBUTING TO THE SAFETY AND
WELL BEING OF ALL.

Neiman Marcus

Enjoy Member Benefit!



KCC Membership

18세이상의 성인에게 적용되며 등록일부터 1년동안 유효합니다. 가족회원은 부부와 18세이하의 자녀를 포함하며 후원자들에게는 가족회원권을 드립니다. 매년 회원권을 갱신함으로 포인트를 적립하여 프로그램에 할인과 우선권을 받습니다. 유효기간을 지켜서 갱신하시는 분은 보너스 1 포인트를 드리고 만기일 3개월이 지나면 적립한 포인트를 잃습니다.

Member

A. Individual(개인) Member	연회비 \$100	1 포인트
B. Family(가족) Member	연회비 \$150	1 포인트

Donor

C. Friend 연후원비	\$200-\$499	2 포인트
D. Friend 연후원비	\$500-\$999	3 포인트
E. Friend 연후원비	\$1,000-\$4,999	4 포인트
F. Partner 연후원비	\$5,000이상	4 포인트

Member Benefit

1. KCC프로그램 등록
2. YPN과 Retirement Club에 참여
3. 적립한 포인트로 할인
 - 2-20 포인트 10%
 - 21-40 포인트 20%
 - 41-60 포인트 30%
 - 61-80 포인트 40%
 - 81 이상 포인트 50%
4. 자원봉사로 포인트 적립 (최다 연 4포인트)
5. 개인용도 장소대여

JUUN HAIR

2nd Level
201.856.1287
juunhair.com

아름다운 머리결의 시작은 JUUN
세련된 스타일의 시작은 KUUN
JUUN & KUUN 에서 새로운 나를 찾는다

KUUN

Street Level
201.956.0432
shopkuun.com

200 Main Street, Fort Lee, NJ 07024

DiVagno

Interventional Cardiology

Dr. Leonardo J. DiVagno, M.D.

Omar S. Hasan, M.D.

Jaehoon Chung, M.D

**심혈관 질환 전문
심장& 말초 중재술
영상의학(MRI, CTA)**



정재훈, M.D.

Jaehoon Chung, M.D

Post Doc Fellowship

Stanford University

University of Illinois

Residency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School

Yonsei University, Korea

**218 State Rt 17 N Ste 310.
Rochelle Park, NJ 07662**

**Office. 201-845-3535
Fax. 201-845-4040**

DiVagno



KCC 한인동포회관
KOREAN COMMUNITY CENTER
100 Grove St, Tenafly, NJ 07670 www.kccus.org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Hackensack, NJ
Permit No. 3226

Now you're in your **comfort zone.**



Honda **of TENAFly**



Welcome to your Comfort Zone

28 COUNTY ROAD, TENAFly, NJ
Minutes away from the GWB, Rt. 4, Rt. 80, NJ Turnpike
201-374-8405 • HondaOfTenafly.com

